

서구, 음악·책·맨발 등 취향 따라 즐기는 축제 선봬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해 10월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제11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청 제공

국악페스타·책축제·가을 힐링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가족·이웃과 함께 취향 따라 즐기는 가을 축제 선사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국악과 책, 음악, 맨발걷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주말에는 국악페스타를 시작으로 책축제와 가을 힐링음악회, 도심맨발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공연과 체험, 독서와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취향에 따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3일부터 24일까지 빛고를 국악전수관과 마재근린공원에서 국악페스타 '판(PAN)타스틱'이 열린다. 23일에는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장구·가야금·판소리 공연이 펼쳐지며, 24일에는 퓨전국악 공연과 가야금·해금 체험, 나만의 갓 꾸미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참여 프

로그램이 진행된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풍암생활체육공원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일원에서는 '제12회 책향기 서구 책축제'가 열린다. '다시, 책으로! AI 시대를 밝히는 생각의 숲'을 주제로 100인의 원탁토론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운동회, 야외도서관, 북 피크닉, 매직버블쇼 등이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 7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잔디밭에서는 '2026 가을 힐링음악회'를 펼칠 메모리(Fall in Memory)가 개최된다.

루체앙상블과 팜페라 그룹 커문, 기드는 밴드의 공연에 이어 가수 이상은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추억과 감성을 선사한다. 원예체험과 캔버스 그림 그리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25일

에는 금당산에서 '제3회 도심맨발 축제'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맨발걷기를 비롯해 자연물 체험, 벽진서원 역사기행, 한마음 운동회, 전통 떡메치기, 맨발 사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주말에는 신나는 국악 공연부터 책과 함께하는 여유, 가을밤 음악회, 자연 속 맨발걷기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서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가을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공연과 독서, 체험, 야외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남구, '사직동 시간우체국' 정식 개관 준비 박차

11월부터 음향·조명·전시 영상 등 시험 가동
모바일 플랫폼도 점검, 내년 3월 정식 개방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 3월 사직동 시간우체국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오는 11월부터 시설 및 시스템 점검에 들어간다.

남구는 21일 "시간우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설별 작동 상태 및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점검한다"면서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방문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 분야에서는 음향 시스템 종합 시험운영과 시스템별 운영 교육을 진행하고, 전기 사용을 위한 안전 검사와 전기 분선 인입도 추진

한다. 또 조명과 자동제어반 시험 가동 및 사용 교육을 비롯해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 배수펌프, 스프링클러 시운전 등 안전 관련 설비도 점검한다.

아울러 전시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도 이어진다.

전시 인테리어에 설치된 영상 장비와 영상 콘텐츠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작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시험 가동하고, 시간우체국의 핵심 기능인 시간 편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과 운영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우체국 모바일 앱의 현

장 구동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방문객을 위한 운영 기반과 콘텐츠에 대한 점검에도 힘을 쏟는다.

남구는 이 기간 아날로그 사진관과 기념품 판매장, 수장고 등의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고, 시간우체국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명예 우체국장 선정 및 시간우체국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도 제작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간우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험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시간

우체국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들은 시간 편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중한 마음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미래로 전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남구는 시설 점검과 함께 방문객 동선 및 이용 편의성도 세심하게 살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에 마련된 영상 콘텐츠는 시간우체국의 조성 취지와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아날로그 사진관을 통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박종수 기자



시간우체국 주변 야간 경관 개선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무안군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나들이하기 좋은 곳...
무안으로 떠나요~~

- 검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 박지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볼게 물들다
-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 윈드서핑의 최적지 홀통유원지
-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명소



무안군